

학생식당도 두손 들었다... 19일부터 1000원 인상

식자재비 인상·이용자 수 감소

“2년간 3억6400만 원 적자 발생”

교우회관 식당도 인상 예고

본교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1층 학생식당 가격이 오는 19일부터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2018년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학생식당 위탁업체 ㈜델리후레쉬와 본교 총무부, 서울총학생회(비대위장=이용재, 서울총학)는 2번의 협상 과정을 거쳐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학생식당 개선안을 확정했다.

인상액 1000원은 물가 인상률과 학생식당 배식방식, 셀프 코너 가짓수를 고려해 결정된 가격이다. 서울총학은 당초 500원 인상을 주장했으나, 총무부 및 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1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학생회는 가격 인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품질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월 1회 특식 제공, 셀프 코너 메뉴 다양화,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물가 상승으로 적자 호소

학생회관 학생식당 위탁업체 ㈜델리후레쉬는 식자재비 증가를 이유로 가격 1000원 인상을 요구했다. 델리후레쉬 신용철 본부장은 “물가가 급등해 2020년과 지난해 총 3억64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식자재 가격이 평균 40% 올랐기 때문에 20% 가격 인상은 합리적”이라 설명했다.

총무부는 “학생과 업체를 잇는 중개자의 입장에서 업체 측에 운영시간 감축, 임대료 면제를 제안하며 가격 인상을 지연하려 했다”며 “인건비와 식자재비 상승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학생식당은 2020년 3월부터 석식 운영을 중단했고, 본교는 같은 해 2학기부터 임대료를 면제해왔다. 신용철 본부장은 “지난해 매출은 2019년도 대비 약 8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다. 델리후레쉬 측은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가격 인상 의사를



학생회관 1층 학생식당 가격이 19일부터 1000원 인상된다. 지난 2일 점심시간, 학생식당엔 이용자보다 빈자리가 더 많았다.

총무부에 밝혔다.

학생식당 가격 인상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서울총학은 지난달 10일부터 학생식당 가격 인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학생식당 가격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875명 중 534명(61%)이 ‘가격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109명(12.5%)은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황인욱(문과대 국문21) 씨는 “학생식당은 학생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저렴한 가격으로 끼니를 때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류지인(문과대 영문21) 씨는 “물가가 올랐으니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500원 인상 대신 품질 향상 요구

지난달 19일 열린 1차 면담에서 서울총

학은 500원 인상을 제안했다. 박영준 교육정책국장은 “타 대학 식당과 비교했을 때 6000원이라는 가격은 평균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델리후레쉬 측은 타 대학과 식당 운영 방식이 다르기에 단순한 가격 비교는 의미 없다고 주장했다. 신용철 본부장은 “학생회관 1층은 모든 메뉴가 자율배식으로 운영되기에 500원 인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코로나19 유행 전 일일 점심시간 이용자 수가 350~400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1학기에는 150~200명 정도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총학은 1000원 인상 시 이용자 수가 더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서울총학이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한 2차 설문조사에서 학생식당 가격 500원 인상 시 응답자 266명 중

121명(45.5%)이 학생식당을 이용하겠다고 답했지만, 1000원 인상 시 29명(10.9%)이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학생식당의 접근성을 고려해 이용하는 학생도 많다”며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이용할 사람은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총학은 가격 인상보다 식당 품질 향상이 우선이라 주장했다. 설문의 응답자 226명 중 110명(48.7%)이 학생회관 1층 학생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품질을 꼽았다. 서울총학은 계란프라이 제공, 1000원 학식을 요구했다.

델리후레쉬 측은 계란값이 안정화되면 계란프라이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철 본부장은 “1000원 학식은 과거 학교와 농림축산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됐다”며 “학교의

지원이 있으면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총무부는 “예산도 문제지만 코로나로 인해 대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두 차례 면담을 거쳐 결정된 개선안은 △월 1회 특식 제공 △셀프 코너 메뉴 추가 및 계절별 다양화 △모바일 식권 결제 서비스 ‘야미’ 도입을 통한 포인트 적립 △인상 전후 품질을 비교할 학생 품평단 등이다.

학생식당은 가격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인상 전 최대 20장의 식권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했던 종이 식권을 19일 이후 사용하려면 추가 비용 1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야미’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모바일 식권은 19일 이후에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델리후레쉬는 “동일하게 운영되는 교우회관 학생식당 역시 가격을 1000원 인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생회관 식당은 총무부 관할이지만 교우회관 학생식당은 교우회가 관리한다. 교우회 박상욱 과장은 “학교 협의체와 업체 측의 합의 내용을 수용 및 보조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며 “19일 이전에 학교 측의 승인이 나면 학생회관과 동일하게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총무부는 직접 관리하는 애기능 학생식당, 의학관 학생식당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안암학과와 산학관 식당 위탁업체인 데일리FS는 아직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글 | 배연수·심수연 기자 press@
사진 | 양수현 기자 positive@

알려드립니다

1957호 고대신문은 추석 연휴로 한 주 쉬어갑니다. 9월 19일 지면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원방법

open@kunews.ac.kr로
10/2(일)까지 지원서 제출

문의

이원호 편집국장
010-4024-4740
김시현 취재1부장
010-5093-6936

모집분야

취재부, 사진부, 미디어부
(디자인, 영상)

선발절차

문자메시지로 개별 면접 및
논술 시험 시간 공지

고대신문 수습기자 모집

2022년 2학기

3학기 이상 활동 가능자
(서울캠, 세종캠)

모집대상

장학금 및 취재비 지급

~10/2(일)까지 모집